나라현・한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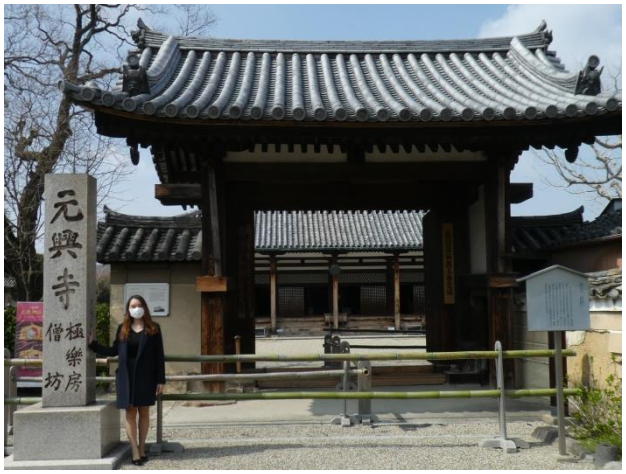
제 6 탄　　간고지 절・한냐지 절

올해는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가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한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충청남도와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제 6 탄에서는 간고지 절과 한냐지 절을 소개합니다.

간고지 절(元興寺)

나라시 내에 있는 간고지 절은 제 1 탄에서 소개한 일본에서 첫 본격적 가람이라고 불리는 아스카데라 절(호코지 절)이 헤이조 천도와 함께 신축 이전한 것입니다.

'일본서기'에는 아스카데라 절 건립에 백제에서 승려와 사공(절 건축 기술자), 노반박사, 와박사, 화공 등의 기술자를 파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와박사가 만든 일본 최초의 기와가 절이 이곳으로 신축 이전했을 때 함께 옮겨져, 지금까지도 극락당(본당)과 선실의 지붕에 수천 장 남아있습니다. 또한, 1998 년에는 나라시 내에 있는 8 개의 신사와 절로 구성된 '고대 나라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그중 간고지 극락방 경내의 옛 승방의 유구(遺構)인 국보 '극락당'과 국보 '선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고지 절

극락당과 선실의 지붕

한냐지 절(般若寺)

나라시 내에는 고구려에서 도래한 승려인 혜관 법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한냐지 절이 있습니다. 한냐지 절은 봄에는 황매화 나무와 벚꽃, 여름에는 초여름 코스모스와 수국,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석산, 겨울에는 수선화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중에서도 여름과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의 명소로도 잘 알려져 '코스모스 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코스모스와 수국이 피는 6 월에 한냐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내 일대에 핀 코스모스와 둥근 유리병에 띄워놓은 수국이 화사하고 예뻤습니다.

여러분도 역사 깊은 절과 사계절을 물들이는 꽃을 보러 가보시는 건 어떨지요.

한냐지 (초여름 코스모스)

(나라현 국제교류원　남현정)